

金州市史

金州市

1986 년 1 월 30 일 인쇄
1986 년 2 월 5 일 발행

金州市史

<비 매 품>

발행처 : 전 주 시 사 편 찬 위 원 회
납품처 : 전라북도인쇄공업협동조합
인쇄처 : 대 광 출 판 사

목 차

축간사.....전라북도지사 심재홍
 발간사.....전주시장 강상원
 제자.....송성용

지 리 편

제 1 장 자연환경 45

제 1 절 위 치 45

1. 수리적 위치 45
2. 지리적 위치 46
3. 관계적 위치 48

제 2 절 지 형 50

1. 산지와 구릉 51
2. 하 천 52
3. 매물퇴적층 53

제 2 장 지 질 59

제 1 절 서 언 59

제 2 절 지질구조 60

제 3 절 지질구조의 발달사 61

제 4 절 지질총론 61

제 5 절 지질각론 64

1. 화강암질 편마암 64
2. 전주통 65

제 6 절 축 적 층 69

제 7 절 응용지질 69

1. 편마암류 69
2. 석회암류 69
3. 무 연 탄 70
4. 규 석 70
5. 석 류 석 70

제 3 장 기 후 71

제 1 절 기후개요 71

제 2 절 기온분포 71

제 3 절 여름기온과 겨울기온 72

1. 여름기온 72
2. 겨울기온 74
3. 여름철 집중강수 76

제 4 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77

1. 시베리아 기단 78
2. 오츠크해 기단 79
3. 북태평양 기단 80
4. 양자강 기단 80

제 5 절 4철의 기후 81

1. 겨울 81
2. 봄 82
3. 여름 82
4. 가을 83

제 6 절 기후요소의 분포 83

1. 기온 83
2. 강수량 85

제 4 장 동 식 물 89

제 1 절 식물상 89

제 2 절 동물상 95

1. 육상 곤충	95
2. 수중 저서 동물	97
3. 덕진연못 동물성 프랑크톤	98
4. 어 류	98
5. 양서류와 파충류	99
6. 조류와 포유류	101
7. 전주동물원	101
제 3 절 주요경관과 식생	101
1. 전지산 일대	101
2. 서산 일대	102
3. 완산칠봉	102
4. 기린봉	102

제 5 장 인문지리 103

제 1 절 역사지리	103
1. 개 관	103
2. 선사시대의 공간조직	103
3. 역사시대의 공간조직	105
4. 마을 이름의 유래	116
5. 전주 관향의 성씨	132

제 6 장 자 원 139

제 1 절 자원의 의의와 전주	139
------------------------	-----

제 2 절 소비자원과 전주	143
----------------------	-----

제 3 절 인적자원에서 본 전주	150
-------------------------	-----

제 7 장 민 성 151

제 1 절 서 언	151
-----------------	-----

제 2 절 자연환경	152
------------------	-----

1. 지리적 조건	152
-----------------	-----

2. 기후 조건	153
----------------	-----

제 3 절 사회적 배경	153
--------------------	-----

1. 인문지리적 특성	153
-------------------	-----

2. 문화 유형	154
----------------	-----

3. 사회 기반	156
----------------	-----

4. 토착세력의 항거	157
-------------------	-----

4 절 각 론	158
---------------	-----

1. 부락과 가족중심의 관념	158
-----------------------	-----

2. 권력자세 계층 대두	159
---------------------	-----

3. 왕권의 지방편견	160
-------------------	-----

4. 사대부의 종속성	162
-------------------	-----

5. 봉당성과 무기력성	162
--------------------	-----

6. 예술적 자질	164
-----------------	-----

7. 풍수지리 신봉	165
------------------	-----

8. 현세 기복사상	166
------------------	-----

9. 기타 민간신앙	167
------------------	-----

역 사 편

상 고 사

제 1 장 총 설 173

제 1 절 전주지명의 변천	173
----------------------	-----

제 2 장 선사시대 고고학적 고찰	179
-----------------------------	-----

제 1절	구석기시대.....	179
제 2절	신석기시대.....	180
제 3절	청동기시대 (상)	182
제 4절	청동기시대 (중)	186
제 5절	청동기시대 (하)	200
제 3 장	부족국가시대	210
제 1절	마한의 변천	210
제 2절	마한시대의 사회상	214
제 3절	마한의 멸망과 전복.....	215
제 4 장	삼국시대	218
제 1절	백제초기 형세와 전주.....	218
제 2절	백제의 국력신장과 제지 축조.....	221
제 3절	백제지방제도의 변천	222
제 4절	백제시대의 전북부근	227
제 5절	백제의 신라서변공격	231
제 6절	전주의 원의	234
제 5 장	백제의 흥복운동	236
제 1절	서 언	236

중세사

제 1 장	고려귀족사회의 성립... 268
제 1절	귀족사회의 성립
1.	고려왕조의 성립
2.	호족연합과 왕권 강화
제 2절	고려초기의 전주

제 2절	제 1 차 나 · 당군 왕도 공략작전.....	237
제 3절	두랑이성 진공작전.....	240
제 4절	제 2 차 나 · 당군 주류성 총공작전.....	242
제 5절	백제 패잔병 망명로	245
제 6절	결 론	247
제 6 장	통일신라시대	248
제 1절	신라 9 주 정비와 전복 ...	248
제 2절	백제고토의 당군 축출 작전	253
제 3절	보덕국 설치와 완산주 서정	255
제 4절	난숙기의 신라와 전주 지방	257
제 7 장	신라말의 후삼국.....	259
제 1절	견훤의 흥기	261
제 2절	견훤부자의 내홍과 금산사	263
제 3절	태조의 백제 고토정책 ...	266

제 3절	지방제도의 정비와 전주 전주	273
제 4절	전주목의 설치와 그 변천.....	275
제 5절	감무제의 시행과 전주목의 관할구역	278

1. 감무제의 시행	278
2. 전주목의 관할구역	279
3. 전주목의 치소	282
제 6 절 전주목의 행정체제	282
제 7 절 천민집단	284
제 8 절 군사제도와 치안유지	286
제 9 절 역참과 조운교통	288
1. 역 참	288
2. 조 운	290
3. 만경강과 수운	290

4. 상업과 교통	291
제 10 절 교육제도	292
제 11 절 의창 · 상평창	293

제 2 장 고려 후기의 전주

제 1 절 무신란기의 관노 죽동의 난	294
제 2 절 몽고의 침입과 전주	296
제 3 절 왜구의 침입과 전주	301

근세사

제 1 장 조선왕조의 개창과 전주

제 1 절 선원세계와 세계	306
제 2 절 환조 신도비의 세보	313
제 3 절 태조실록의 세계	314
제 4 절 목조의 행적과 실록	315
제 5 절 전주의 목조대왕 사적	317
제 6 절 태조의 황산대첩과 전주	319

제 2 장 조선전기 전주부제도

제 1 절 전주부의 행정제도	322
제 2 절 지방군제와 전주의 진관 체제	323
제 3 절 교육제도	324
제 4 절 경기전의 창건	326
제 5 절 조경묘의 창건	328
제 6 절 조경단의 설단	329

제 7 절 전주사고의 설치	332
제 8 절 임진왜란과 전주사고	340

제 3 장 정여립의 모반사건

제 1 절 정여립의 생애	343
제 2 절 정여립 모반사건 기축옥	344
제 3 절 기축옥의 전개	346
1. 이발의 옥사	346
2. 정언신의 옥사	347
3. 최영경의 옥사	348

제 4 절 정여립 모반사건의 진 진상

1. 기축옥과 송익필	349
2. 정여립 모반사건에 대한 의문점	351

제 4 장 임진 · 정유왜란과 전복

제 1 절 임진왜란	354
------------------	-----

1. 임진왜란 초기의 호남정세	354
2. 웅치·이치 전투와 전주방어	357
3. 금산전투	361
4. 의병의 활약	363
5. 임진·계사란후의 전주실정	366
제 2 절 정유재란	368
1. 정유재란과 전주피침	368
제 3 절 유공인물 약전	370
제 5 장 조선후기 사회변화	375
제 1 절 정치·군사기구의 개편	376
제 6 장 동학농민 운동과 전주	381
제 1 절 교조신원운동과 전주	381

일제침략기

제 1 장 한말의 의병전쟁	436
제 1 절 제 1 차 의병전쟁	436
제 2 절 식민지 지배 의병전쟁	438
제 3 절 제 2 차 의병전쟁	439
제 4 절 호남지방의 의병전쟁	439
제 5 절 1907 년 이후의 의병 전쟁	444
제 2 장 일제침략기	455
제 1 절 국권의 피탈	455
제 3 장 식민지배하의 통치제도	459

1. 동학의 급성장과 삼례취회	381
2. 복합상소와 보은집회	381
제 2 절 동학농민군의 봉기	383
제 3 절 동학농민군의 제 2 차 봉기	395
제 7 장 개화기의 전주	421
제 1 절 구한말의 전주	421
제 2 절 개항이후 외국인의 내전	423
제 3 절 개화기의 전주관계	426
제 4 절 전주의 신식교육과 문명 개화	428
제 5 절 개화기 전주의 상업과 신문발행	430
제 1 절 각종 국권의 말살제도	459
1. 헌병·경찰제	459
2. 중앙 및 지방관서	461
3. 이왕직의 설치	463
4. 조선귀족령의 실시	464
5. 임시은사와 상치은전	464
6. 토지조사제	465
7. 산업독점과 민족자본의 말살	466
8. 소위 문화정책의 실시	466
9.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467
10. 공업화 정책의 실시	468
11. 민족말살정책의 실시	468

제 4 장 3·1 운동과 전주469

제 1 절 일제의 침략469

제 2 절 2·8 독립선언470

제 3 절 독립선언서의 지방수송 ...471

제 4 절 전주의 독립만세 시위
준비.....475

제 5 장 항일운동482

제 1 절 항일운동의 배경482

제 2 절 각급 학교의 항일
운동.....484

제 3 절 전주의 학생 항일운동.....486

제 6 장 일제수탈기 503

제 1 절 일제수탈하의 전주..... 503

1. 행정면에서의 전주..... 503

2. 군사·경찰 505

3. 교육기관의 설치..... 505

4. 일본인의 전주 입주 508

5. 시 장 509

6. 전당포 511

7. 조선용재로 산림남벌..... 511

8. 송탄유 채취에 학생동원 513

9. 공출이라 칭하는 강탈 514

10. 민족말살의 여러 시책 516

향 토 편

제 1 장 문화재·명승·고적 ... 523

1. 보 물 523

2. 지방기념물 527

3. 서 원 538

4. 누·정 543

5. 고 찰 560

6. 비 562

7. 산 성 568

8. 유 물 571

제 1 절 지정문화재 578

제 2 절 민속놀이 579

제 3 절 민간신앙 594

제 4 절 전주의 특산..... 601

제 5 절 세시풍물 610.

제 6 절 민 요 615

제 3 장 향토 유희 634

제 1 절 전주의 희락..... 634

제 2 절 전주의 속신..... 642

제 2 장 무형문화재 578

제 4 장 인물열전 657

행 정 편

제 1 장 제 도 및 행 정	691	제 2 절 국민의료	784
제 1 절 서구식 행정제도 도입	691	제 5 장 사 회	788
제 2 절 민주행정	696	제 1 절 통제하의 민간인결사	788
제 2 장 재 정	758	제 2 절 시민의 자치활동	791
제 1 절 현대적 사세 예산제도 도입	758	제 6 장 개발행정	799
제 2 절 전주시 시대 초기	764	제 1 절 도시개발	799
제 3 절 제 3 공화국하의 시재정 ...	770	제 2 절 1980 년의 장기종합개발 계획	818
제 3 장 보 안	778	제 3 절 전주권 개발구상	821
제 4 장 보 건	780	제 4 절 전주 도시세력권과 개발 방향	823
제 1 절 도시화와 위생	780	제 5 절 지역개발 (새마을운동) ..	834

정 치 편

제 1 장 정 · 부통령 선거와 전주 ..	843	제 2 장 법원 · 검찰 · 교도소 ..	879
제 1 절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	843	제 1 절 전주지방 법원	879
제 2 절 국회의원 선거	853	제 2 절 전주지방 검찰청	882
제 3 절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863	제 3 절 전주교도소	884
제 4 절 지방자치단체 선거	871		

산업경제 편

제 1 장 산업구조상의 특징	889	제 2 장 제 1 차 산업	894
-----------------------	-----	----------------------	-----

제 1 절	새 농업기술의 도입	 894
제 2 절	도시 근교농업 전환	 897
제 3 절	1 차산업 관계기관 단체	 916
제 3 장	제 2 차산업	 919
제 1 절	전통 수공업시대의 전주	 919
제 2 절	공업근대화로 발돋움	 923

제 3 절	전주공단의 설치	 927
제 4 절	건설업 현황	 936
제 4 장	제 3 차산업	 938
제 1 절	전주의 상업 경제활동	 938
제 2 절	전주시의 금융	 949
제 3 절	전주의 관광·운수업	 955
제 4 절	전주시의 체신	 965

교 육 편

제 1 장	고려 및 조선조시대	.. 995
제 1 절	고려시대까지	 995
제 2 절	조선조시대	 996
제 3 절	각종 교육기관	 998
제 4 절	전주향교와 유림	 1003
제 2 장	개화기의 전주 교육	.. 1004
제 1 절	한말의 교육	 1004
1.	개화운동의 전개	 1004
2.	신교육의 태동	 1004
3.	갑오경장과 새로운 학제	 1005
4.	전주에서의 신학교 설립	 1005
제 2 절	일제 식민지 교육	 1006
1.	조선조 교육령의 반포	 1006
2.	3·1 운동후 문화정치	 1007
3.	전주에서의 학교설립	 1007
제 3 절	미군정하의 교육	 1008
1.	8·15 광복	 1008

2.	미군정의 실시	 1008
3.	교육이념의 설정	 1009
제 3 장	오늘날의 전주교육	.. 1010
제 1 절	정부수립 후 50 년대까지	.. 1010
1.	교육법의 제정	 1010
2.	학도호국단의 결성	 1010
3.	교육의 민주화	 1011
4.	6·25 동란과 학제개편	 1011
5.	교육자치제 실시	 1012
제 2 절	60 년대 이후 현재까지	.. 1013
1.	교육과정의 개편	 1013
2.	교육자치제의 부활	 1013
3.	국민교육헌장의 제전	 1014
4.	중학교 무시험 진학	 1014
5.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1015
제 3 절	각급 학교 현황	 1017
1.	유치원 개황	 1017
2.	국민학교 개황	 1017

3. 중학교 개황	1018
4. 특수학교 개황	1021
5. 고등국민학교 개황	1021
6. 사설강습소 개황	1022
7. 유치원 일람	1024

제 4 절	고등학교 현황	1028
제 5 절	고등교육기관 현황	1036
제 6 절	초·중·고등학교 현황	1054
제 7 절	사회교육	1063

종 교 편

제 1 장 불 교	1067
-----------------	------

제 1 절	전주 불교의 개황	1067
제 2 절	해방후의 전주 불교	1069
제 3 절	전주 불교 종파현황	1070

제 2 장 천 주 교	1073
-------------------	------

제 1 절	천주의 씨앗들	1073
제 2 절	전주지방 최초의 순 교자	1075
제 3 절	세계 최초의 동정부부	1077
제 4 절	전주의 순교자들	1080

제 5 절	전동성당과 전주교구의 탄생	1082
-------	-------------------------	------

제 3 장 기 독 교	1085
-------------------	------

제 1 절	남장로교의 전주 입교 발자취	1085
제 2 절	호남 최초의 예배당	1088
제 3 절	남장로교의 선교활동	1091

제 4 장 원 불 교	1093
-------------------	------

제 1 절	원불교의 창교	1093
제 2 절	원불교 현황	1095

문 화 편

제 1 장 문 예	1099
-----------------	------

제 1 절	문 학	1099
제 2 절	미 술	1121
제 3 절	무 용	1133
제 4 절	국 악	1140
제 5 절	음 악	1155
제 6 절	연 극	1163
제 7 절	영 화	1183

제 2 장 언 론	1189
-----------------	------

제 1 절	신 문	1189
제 2 절	방 송	1195
제 3 절	출 판	1200
제 4 절	시민의 장 수여	1217

제 3 장 체 육	1219
-----------------	------

제 1 절	체육발전 과정	1219
제 2 절	스포츠 전환기	1222
제 3 절	개화기의 전북 체육	1228
제 4 절	일제시대의 전주 체육	1230
제 5 절	8.15 후 전주 체육	1237

이 「만월이야」를 외치면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천교(南川橋)와 서천교(西川橋)에도 횡불이 번지기 시작한다. 기린봉에선 둥근달이 떠오르고, 곤지봉, 투구봉에선 「만월이야」를 외치는 소리, 남천, 서천교에선 횡불의 행렬, 사람들은 일제히 둥근달을 바라보며 다리밟기를 시작한다. 물론 자기의 나이만큼 밟는다.

이때 또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의 1년간의 평안함도 함께 빌어 주기도 한다. 처녀 총각들은 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뭍까지도 밟아 준다.

그러나 지금은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는 다리밟기 풍습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그때의 서천교, 남천교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어 옛 정취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리밟기 풍속이 살아진 지 오래 되었으나 지금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옛 정취가 그리워 정월 대보름날 밤이면 어린 손자들의 손목을 잡고 콘크리트로 된 남천교와 서천교의 다리를 밟으며 옛날 어린시절을 생각하기도 한다.

1년 내내 집안에만 있었던 처녀들도 이날만은 치렁치렁 땡아내린 땡기를 팔랑거리며 다리밟기에 나서 총각들의 마음을 온통 들뜨게 만들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들려 주기도 한다.

3. 전주 단오 난장

옛날부터 강릉과 전주의 단오놀이는 규모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자기 지역적인 특징이 있지만, 전주의 단오는 덕진 연못의 물맛이가 유명하였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현재는 고유 전래한 물맛이보다 난장에 치중한 인상이다. 이에 앞서 풍남제(豐南祭)를 민속 명절인 단오절(端午節)에 열었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즉 옛날 조상들의 민속에 대한 전통을 보이고, 이를 재조명하여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풍남제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어 화합의 전기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고향의 민속을 알 수 있는 시민들의 학습장이 되었다. 따라서 풍남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판이자 굿판이라 하겠다. 일정하게 반복적인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가슴을 펴고 삶의 윤희와 리듬을 얻을 수 있는 시공(時空)이 바로 이 단오 놀이마당이다. 덕진 연못에서는 부드러운 젓가슴의 반나체 여인상을 결눈으로 살짝 볼 수 있고, 씨름판에서는 상하의를 벗어부친 패기가 넘치는 패남상에 환성을 올린다. 이 단오는 그동안의 흙냄새와 땀냄새를 잊고 고운 님의 손길같은 것을 환상해 볼 수 있는 세계이다.

필자는 단오절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개선책을 적어 본다.

첫째, 덕진 물맛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욕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주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인 성황제를 재현하여야 한다. 셋째, 강릉의 단오제와 같이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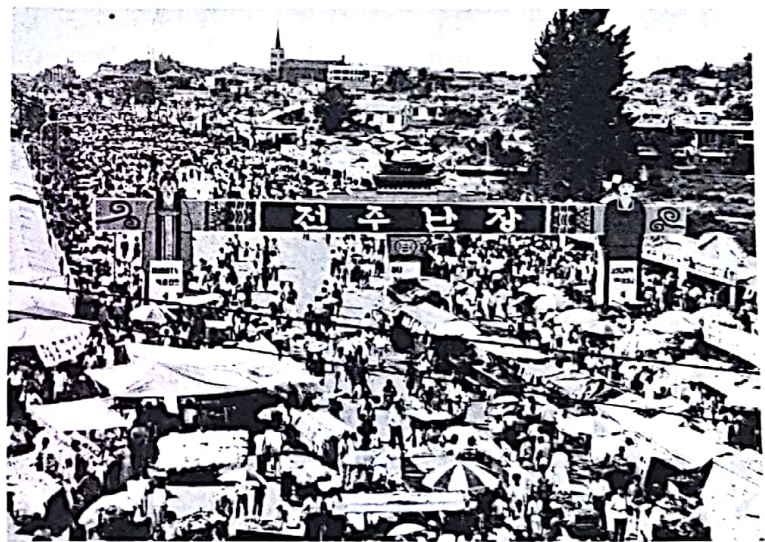
단오전의 행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중가절(天中佳節)로서 무재풍년(無災豐年)을 빌고, 2. 창포물(菖蒲水)에 머리를 감고, 3. 봉숭아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4. 앵도화채와 단오떡을 만들어 먹고, 5. 물맞이를 하고, 6. 지역에 따라 성황제를 지내고, 7. 씨름을 하고, 8. 단오부채와 단오빔을 만들고, 9. 단오점을 치고, 10. 단오부적을 만들어 붙이는 일 등이었다.

난장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난'은 <난들>, <난사람>에서와 같이 출중(出衆)의 난(出)의 뜻이다. 즉 '안(內)에서 밖(外)으로 난다.' '들어난다' '노천에 떨어져 나간다' '정기적인 것을 벗어난 비정기적인 것' 등의 뜻이다.

따라서 난장은 정기적으로 서는 장이 아니라 정한 날짜 외에 특별히 며칠 더 터놓는 장이다. 요즈음의 난장은 향토음식과 민속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한편에서는 오락도 한다. 난장의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놀이판과 굿판에서 구경도 하고 함께 즐기며, 웃음과 화합의 장으로 삼은 데에 있다.

그러면 옛 난장의 특징과 유래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문헌으로는 알 수 없고 현장조사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유래설에는 장설(場說) 놀이설 등으로 나누어 보아 왔으나 주종 선후관계에 정론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 자체가 두 가지를 겸한 양면성, 즉 경제성과 오락성이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 시전(市廛)의 상행위와 오락(씨름판)이 동반하는 형태이다.



40 년만에 재현된 전주난장

그러면 어느 때 무엇을 목적으로 난장을 트게 되었는가? 새로이 시장을 개설하고 일반에 널리 홍보시키기 위하여서이거나, 혹은 기존시장의 부진을 면하고 상인들의 성업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시기는 농한기로 잡고, 대개 5일, 10일, 길게는 1개월까지 하게 된다. 난장 기간에는 부락의 단위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다. 이 때 멀리 떨어진 친지를 재회할 수도 있고, 성대한 장사와 잔치 분위기를 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그 지역의 터를 누리고 판을 벌임으로써 제재개운(除災開運)의 운세를 트기 위한 기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장은 위안(慰安), 지진(地鎭)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락장이 되는 것이다. 난장의 경비는 상인들과 지방유지들에게서 염출되고, 나머지는 자리세를 받아서 충당하기도 한다. 난장은 돼지머리를 제단에 놓고 제관이 고사를 지내어 시작되는데, 음식점, 술집, 투전판, 윷판의 도박이 개장되고, 흥행굿판에 농악이 등장하기도 한다. 난장의 주요 행사인 씨름판은 이 때의 절정을 이룬다. 씨름판에는 명태 2마리, 마포 1필, 패랭이 1개, 짚

남아의 기개를 떨쳐 보는 돌싸움도 달이 중천에 오면서 그 막을 내린다. 풍속치고는 무서운 풍속이나 여기에서 젊은이들은 남자다운 기개를 기르고 용기와 힘을 기른다. 해마다 대보름은 어김없이 찾아와도 그 때 그 젊은이들의 용기와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

7. 오목대 화전놀이

한식(寒食)이 지나면 승암산에도 봄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실버들이 늘어선 남천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손 끝에도 봄의 입김이 여울처럼 출렁인다. 이 때쯤 승암산, 기린봉, 오목대는 진달래꽃으로 환하게 물든다. 오목대의 화전놀이도 이 때부터 시작된다.

해마다 3월 3일 음력 삼진날(三辰日)이 되면 전주부에 있는 모든 선비들 혹은 한량, 음객들이 모두 오목대에 모여 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 화전놀이에는 부성내에 있는 노래 잘하는 기생, 얼굴이 잘 생긴 기생들도 함께 끼어 시조를 읊고 시를 지으며 봄을 노래한다.

이 놀이에는 반드시 진달래 꽃잎으로 화전(꽃잎에 참쌀가루를 발라서 기름에 튀긴 떡)을 불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은 술을 서로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오목대의 이름은 이 때 어목대(於穆臺) 혹은 미목대(眉目臺)라고도 불렀다.

후백제의 왕 전원이 이 곳에 궁궐을 지었다고 전하는 오목대에 올라서면, 훤히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발 아래서 펼쳐진다.

고려말(高麗末) 이성계(李成桂) 장군이 전라도에서 노략질 하는 왜구(阿只撥道)를 정벌하고, 이 곳에서 군사들과 잔치를 베풀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다.

8. 연 등 제

연등제(燃燈祭)는 해마다 4월 초파일이면 전주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뜬다.

4월 초파일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경축하는 행사가 배풀어지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오색등불을 밝히는 이 날 하루만은 경건하게 보낸다. 불교를 신봉하건 안하건 남녀노소가릴 것 없이 손에손에 꽃등을 켜들고 절로 모여든다.

절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꽃등을 받아 밧줄에 달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를 빈다. 절마다 꽃등행렬이 수를 놓을 때 성내의 남천교와 서천교 등에도 연등행렬은 줄을 잇는다. 이 행사는 밤을 지낸다.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여 4월 초파일의 연등제는 이조(李朝) 5백년 동안 불교 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연등제는 모든 피로운 생활과 백여덟가지의 고통스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부처님 오신 날

을 경축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데 그 뜻이 있었다. 4월 초파일이면 절에서는 백여덟번의 종을 친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팔번뇌를 잊는 성스러운 종의 울림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부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만이 등불을 밝히고 석가 탄일을 경축한다.

9. 단오절

단오절을 중오절(重午節) 또는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고도 부른다.

단오절엔 여자들이 창포(菖蒲)물에 머리를 감고, 그 뿌리로는 수복(壽福)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머리에 꽂는다.

처녀들은 손톱에 봉선화로 물을 들이고 그네뛰기를 한다.

일곱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오색실을 손목에 동여맨다. 그리고 이 날은 차, 앵도화채, 보리단수, 죽순탕, 썩단자, 콩죽, 계피떡을 만들어 먹었다.

전주의 단오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덕진연못의 물맞이를 하기 위해 먼 곳에서까지 여자들이 모여들어 먼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온통 아낙네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덕진연못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연못이 신선약수터로 널리 알려진 때문이다. 연못에 칭칭늘어진 머리채를 감으며, 선약(仙藥)의 효험을 얻어 1년 내내 건강하게 해달라고 용왕께 축원을 올린다.

아낙네들은 이 날만은 부끄러움 없이 옷을 훌훌 벗고 연못에 들어가 몸을 씻기도 한다. 연못에서 몸을 씻으면 부스럼, 땀띠, 눈병, 두통, 신경통, 견비통 등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날이면 전국 각처에서 아낙네들이 덕진연못의 신비한 약효를 찾아 모여 들었고 하며 지금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 3절 민 간 신 앙

1. 당 산 제

당산(堂山) 옛날에는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그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守護神) 즉 부락 수호신을 섬기는 민간신앙이 있었다.

마을 뒷산의 산신(山神)이 산 아래의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하여 마을 뒷산에 산신당을 설치하고, 여기에 부락사람 전체가 동원되어 제사를 지내는 부락제가 있었다. 그러나

洞이라 했음) 가장동이 있었다.

위의 마을에 모두 마을의 제단이 있었다. 부중에는 누석단으로 된 것과 은행나무와 같은 고목의 당산나무로 된 것도 있었으나 부성 밖에 있는 마을에는 당산나무로 된 것이 많았다.

당산에 대한 부락제는 정월보름에 행하였다.

부락제는 미리 유사와 제관을 선출하되 정결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에 선출된 유사, 제관은 적어도 2주일 동안은 굶은 것을 보지 않고 목욕재계를 계속해야 했다. 부락제의 비용은 부락민이 백미나 돈을 추렴하여 제물과 술을 준비한다. 부락제는 당산신에게 그 해에 병마와 수화풍재(水火風災)가 없이 시화연풍(時和年豐)하게 보호하여 달라는 기원을 한다. 이 당산제도 성황사의 제향과 같이 세 사람의 헌관이 술잔을 놓고, 축문을 읽는다. 가정마다 소재초복을 비는 소지(燒紙)도 올린다.

성황사나 여단의 제사는 관의 집행임에 대하여 당산제는 주민들이 집행하는 점이 다른 것이다.

당산에 대한 부락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된다. 풍물까지 동원하여 재향이 끝나면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즐긴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각 부락의 농기가 출동되는 것이다. 부락제를 지낼 때에 당산의 앞에 농기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24개 부락의 농기가 전주천 백사장 넓은 곳에 한데 모여 기세배(旗歲拜)를 행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이 기세배의 내용에는 농신숭배(農神崇拜)를 내용으로 하는 전래적인 민속신앙(民俗信仰)이 깃들어있다.

호성동의 마을제 : 옛날의 초포 배미실 마을이 전주시에 편입되어 호성동이라 하는 바 다른 부락제는 인멸되었는데 이 마을만은 지금까지 현존하여 유일하게 볼 수 있다. 매년 정월 초이틀(陰一月二日) 밤에 제사를 행한다. 보통 당산제라는 말과 같이 산을 배경으로 위치하는데 여기는 산이 아니고 들 가운데(野中)에 제단이 있다. 이 마을은 논과 밭만이 있는 야지(野地)이기 때문이다. 마을앞 들 가운데 제단이 있다. 일반적인 부락제와 다른것은 당집도 당나무도 돌(立石)도 없는 평지에 제단이 있고 당산제를 천제(天祭)라 칭한다. 제사날에는 모든 집이 육식을 하지않고 채식을 한다.(피를 금기하는 데 연유) 기독교 신자가 극소하고 당산제를 종교처럼 신앙한다. 특별한 양반 제층이 없고 평민만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풍년과 안전을 기원하는데, 부락제가 오늘날에도 인멸 되지않고 존속하여 전승된 것 같다.

2. 농신숭배의 민간신앙

1) 유짓대와 보름밥

우리나라는 고대 부터 농신을 숭배하는 풍속이 여러가지 형태로 전하여진다.

옛날 부터 농업을 주로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오곡(五穀)을 심어 거두게 하는 것이 모두 기후를 조절 풍운우로(風雲雨露)를 고르게 하여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여물게 하는 신

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신은 자연의 조화를 구사하는 하느님인데, 이 하느님이 곧 인간의 농사도 주재하는 농신이라고 보았다.

고대 부여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마한(馬韓)의 솟도제(蘇塗祭)가 모두 하느님을 숭배하는 제천행사이면서 농신에 대한 제전이였다.

농사의 풍흉은 곧 하느님의 주재하는 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농신으로 보고 이 농신 하나님에게 축제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정월달이 되면 농가에는 집집마다 뜰앞 처마 끝에 기대어 높은 간짓대를 세우고, 간짓대 위에는 유지뽕이를 씌우고 그 밑에 새끼를 길게 늘어 처마 아래까지 늘어지게 하고, 새끼에는 벼, 조 등의 이삭을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많이 꿰어둔다.

이 간짓대를 「유짓대」라고 하는데, 유짓대는 정초에는 농신하느님이 지하에 내려와서 한 달동안 인간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농신 하느님이 이 유짓대에 의지하여 있게하는 것이다.

이 신주짓대에 유지뽕이를 씌우고 곡물의 이삭을 꿰어두는 것은 가을에 베어들인 벼가리를 높이 쌓아 그 위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유지뽕이를 씌우는데, 그 벼가리(벧눌이라고도 함)와 같은 신주대를 세우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을 상원일(上元日)이라고 하는데, 상원일은 가장 높고 으뜸되는 신(神)이 강림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명칭한 것이다.

이 상원일에 농신 하느님의 은혜로 수확한 오곡으로 밥을 지어 유짓대 신기(神旗) 아래에 올리고 당년의 농사도 유짓대 높이와 같은 벧가리가 많이 쌓이도록 풍년이 들게하여 달라는 축원을 하는 것이다.

정월이 다가고 이월 초하룻날이 되면 농신 하느님의 하늘로 돌아간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날 유짓대를 거둘 때에 큰 맥사리(곡식담은 짚그릇)에 유짓대의 새끼에 꿰놓은 곡식이삭을 베어 담으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 하는 소리를 외치는데, 이것도 그 해 농사가 천석, 만석의 많은 수확을 하게 도와 달라는 축원이다.

2) 농기세배

농신 하느님의 신주 짓대는 저 유짓대 외에 또 한가지 다른 것이 있다.

이는 곧 농촌부락마다 갖추어 있는 농기(農旗)다. <농기>는 큰 대나무로 된 간짓대에 넓은 기폭을 달고 간짓대 위에는 꿩의 꼬리털을 묶은 깃장목을 꿸고 그 바로 밑에 방울을 단다.

기폭은 「농자는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혹은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쓰는 것은 근래에 이르러 쓰게 된 것이고 조선조 후기만 해도 글자를 쓰지 않고 용(龍)을 그렸다. 그래서 이 기를 <용기>라고 이름하였다. 지금도 이 용을 그린 기폭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용을 그린 것이나 글씨를 쓴 것이나 다같은 농신의 신주를 의미하는 농기이다.

하느님이 여름철 45일 동안을 지하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를 돌보았는데, 그 농사의 수확은 하느님이 승천한 뒤인 8월달이 된다.

이 수확한 곡물을 하느님에게 대접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먹는 것은 하느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첫번째 수확한 쌀을 집안 당산 철용단지에 넣어 두었다. 또한 정하게 만든 첫 수확의 쌀을 오쟁이나 다른 정한 그릇에 담아 하느님 쌀로 두기도 했다.

하느님은 우리나라에서 환인·환웅·환검의 삼신으로 보는 사상이 있으므로 <삼신쌀>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하느님 쌀을 가지고 10월 3일 하느님 강림하는 날을 기다려서 떡시루를 만들어 하느님께 고사하는 것이다.

5) 삼신 쌀에 담긴 신앙

오늘날에도 어떤 가정에서는 방안 웃목에 삼신쌀이라는 것을 종이 주머니나 바가지에 넣어 높이 모시고, 여기에 아기를 만들어주고, 아기의 생육을 주관하는 3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아기를 낳게 해달라거나 잘 길러 달라는 기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원 행위는 앞에서 말한 농신 하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신곡을 만들어 정하게 보관하는 풍속이었다. 신쌀을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은 생산신(生産神)을 신앙하는 삼풍속에 의한 것이다.

삼신쌀은 아기를 낳게하는 삼신이 이 쌀에 의지하여 있는 신주쌀로 간주한다. 아기를 못 낳은 여인이 깊은 산골 명산의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려 삼신을 받아다가 삼신이 깃들이는 삼신쌀주머니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비선을 한다. 이러한 신앙은 하느님과, 농신과 산신 그리고 생산신을 이명동체(異名同體)의 동성신(同性神)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래적인 민속신앙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에도 전주시내에는 이에 대한 연속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4 절 전주의 특산 명물

1. 전주 한지

1) 개 관

종이는 문화와 역사를 현대에 남기게 한 유일한 매개물이다. 종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문화는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에 의해서 우리 인류문화와 역사는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 지방의 한지제조업은 입지(立地)와 전주천의 깨끗한 수질(水質) 원재료 및 생산

접박이 등의 무늬를 넣고, 단절에는 매화·쪽매화·새·십장생 등 각종 문양을 수 놓는다.

낙줄이 끝나면 광방으로 간다. 먼저 살을 하나하나 물로 닦아 깨끗히 한 후 이것을 말린다. 광방에서는 속살을 양쪽으로 휘면서 부채의 군안쪽부터 칼로 다듬어 하나하나 동글게 굴리면 서 윤을 낸다. 직선인 갓대를 인두로 구부정하게 휘는데 이것은 부채끝을 모으기 위한 작업으로 「뽕을 잡는다」고 한다.

다음은 도배방으로 간다. 부채에 도배할 선지(扇紙)를 부채 형태대로 오려내고 종이를 접는 작업을 한다. 부채살에 종이를 풀로 바르고 마지막 다듬는 손질을 본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사복방에서 부채의 목을 묶는 작업을 해서 부채의 형태를 고정시킨다. 이렇듯 한 자루의 부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4) 태극선의 제작

태극선에 쓰이는 재료로는 살을 만드는 대나무와 손잡이를 만드는 나무, 선면(扇面)을 바르는 태극무늬의 비단형질과 또한 손잡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사복장식을 들 수 있다.

태극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대나무를 알맞는 길이로 절단하여 일정한 굵기로 쪼개어 납작하게 만드는 절죽작업부터 시작하여 선지 위에 풀을 칠한 후 살을 알맞게 배열하는 살놓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살의 수는 대개 80개 안팎을 놓는다.

다 놓여진 살 위에 다시 풀칠을 한 후 선지를 덮고 압축시켜 선지와 살이 완전하게 밀착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태극선의 문양을 선면에 붙이는 작업으로 먼저 태극선에 사용되는 각 색깔의 형질을 종이에 배접하여 건조시킨 후 문양대로 절단하여 살이 놓여진 선면에 붙인다.

완성된 선면은 건조하면서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면의 송판에 선면 네 곳을 풀로 붙여 건조한다.

건조된 사각형의 선면을 부채의 형태대로 재단하는 과정으로 작두를 이용해 형태를 도려낸다. 재단된 선면의 갓을 선지(扇紙: 검은색을 물들인 한지 테이프)로 테두리를 정리하면 태극선의 선면이 완성된다. 다음 마지막 과정으로 선면에 준비된 자루를 끼고 못을 박아 고정시키면 태극선이 완성된다.

3. 전주의 음식

전주지방의 부녀자들은 음식 솜씨가 각별히 뛰어났고 그 정성이 지극하였다.

음식 솜씨 중에서도 특히 젓갈류가 뛰어나 게젓, 명란젓, 새우젓, 오징어젓 등 그 담는 법과 간수법이 매우 훌륭하며 젓갈을 넣어 담는 김치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일품이었다.

이처럼 아낙네들의 음식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주 비빔밥은 평양의 냉면과 개

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의 하나라 일컬었으며 콩나물 국밥 또한 별미로 경향간에 널리 알려져 왔다.

이밖에도 전주 지방에는 전주 8미(八味) 또는 10미라 하여 별미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비빔밥>

비빔밥의 유래는 흔히 비빔밥을 전주 고유의 음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빔밥은 전국적인 음식이다.

또한 비빔밥이 당초 서민들의 가정에서 해먹던 음식에게 유래했다고도 하지만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궁중음식에서 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궁중음식의 수라(임금이 먹는밥)에는 흰수라, 팔수라, 오곡수라, 비빔 등 4종류가 있는데 이 때 비빔은 점심 때나 혹은 종친이 입궐했을때 가벼운 식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비빔은 수라라 하지않고 그대로 비빔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차츰 양반계급이나 중인, 서민에게까지 전하여져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주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 전주사적 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향토 민속발굴에 노력했던 이철수(李哲秀, 작고)는 조선조 때 감영(監營) 내의 관찰사, 풍락헌(豐樂軒)의 판관 등이 입맛으로 즐겨 왔었고, 성(城) 내외의 양가에서는 물역(物役)이나 노역(勞役)이 따랐기 때문에 큰 잔치때나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 입 사치로 다투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주 비빔밥은 고관들이나 반가(班家)에서 식도락으로 즐겼던 귀한 음식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빔밥은 어느덧 전주의 명물이 되어 외래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전주에 들르면 꼭 한번씩 시식을 하게끔 되었으며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재료로는 전주 비빔밥의 재료는 30여가지나 된다.

콩나물 청포묵, 찹쌀고추장, 쇠고기육회 또는 육회볶음, 미나리, 접장, 참기름, 달걀 등이 주재료이며, 부재료는 계절마다 다른데 대충 깨소금, 마늘, 후추, 시금치,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녹두나물, 무우생채, 애호박볶음, 오이채, 당근채, 파, 호도, 밤채, 잣, 김, 취나물, 배채, 쭈갓, 상치, 은행 등이 쓰인다.

비빔밥에서 주재료로 쓰이는 콩나물은 특히 외뿌리로 잔가지가 없고 연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하며, 청포묵과 미나리는 10미중의 하나이고 찹쌀로 빚는 고추장이 제 맛을 냄으로 한층 성가를 높히는 것이다.

조리방법은 비빔밥의 조리 과정을 보면, 먼저 닭을 푹 삶은 진한 국물을 동이에 담아놓고 실고기는 잘게 만들어 쟁반에 담아 놓는다.

암소 등심살을 삶아 채로 받쳐서 국물은 동이에, 살코기는 잘게 만들어 역시 쟁반에 담아 놓는다.

닭 삶은 국물과 등심살 삶은 국물을 혼합한 다음 솔가지나 방울로 불을 때어 꼬두밥을 짓고, 이 밥은 큰 대소쿠리에 퍼 담아 소라주걱으로 헤쳐 가면서 식혀 놓는다. 퍼 담은 소쿠리 밥에다 맑은 물을 살짝 풍기고 행주보를 덮어 찜밥이 불지않고 고실고실 윤이 흐르게 한다.

포고버섯과 생육회 또는 육회볶음밥을 온갖 양념으로 무쳐서 쟁반에 담아 놓고 콩나물은 줄기만 삶아 소쿠리에 담아 놓는다.

미나리는 뿌리와 잎을 떼어낸 후 살짝 익힌다. 쪽썰쟁이무침, 녹두묵, 파, 김, 살짝 삶은 무우채 등을 각각 그릇에 담아 놓고 양념을 갖춘다.

이렇게 하여 밥을 소라주걱으로 접시에 담아 국물로 두 세번 갈아 부은 후 삶은 고기를 밥에 넣고 표고 생육회 등을 담고 콩나물, 미나리, 녹두묵, 파, 무우채 등을 넣고 양념을 친후 비벼낸다.

그러나 요즈음도 이와같이 재래식 조리 방법으로 비빔밥을 지어내는 업소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고 재료도 완전하지 못한 곳도 더러 있긴하다.

<콩나물 국밥>

전주의 비빔밥은 흔히 콩나물 비빔밥이라고 할만치 콩나물은 전주지방 음식의 대명사처럼 불리운다.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을 넣고 가진 양념을 곁들여 펄펄 끓여내는 콩나물국밥은 해장술 한잔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여 술꾼들에게 특히 인기있는 음식이다.

옛부터 전해오는 전주의 콩나물은 임실(任實) 지방에서 나는 서목태(鼠目太)를 씻으며 눈에 흰 테를 두른 검은 콩으로, 마치 쥐의 눈과 같다하여 쥐눈콩으로 불린다.

콩나물을 기르는 방법은 먼저 썩거나 부썩진 콩을 골라낸 후 물에 충분히 불려 소쿠리에 건져낸 다음 아랫쪽에 보자기를 씌워 싹을 틔운다.

이렇게 발아된 콩은 하루에 물 주는 횟수를 계절별로 달리하는데 봄에는 세 차례, 여름에는 네 차례, 가을에는 두 차례, 겨울에는 한차례씩 물을 주는데, 반드시 우물물을 사용한다.

전주의 콩나물이 유명한 것은 특히 전주지방의 수진이나 기후가 알맞기 때문인데, 콩나물은 외뿌리로 잔뿌리가 없게 키우는 것이 요령이며 다 자라기 전에 뽑아 사용하므로 질기지 않고 연하며 그 길이가 5~6cm쯤 됐을 때가 맛이 좋다.

국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간수로 끓여 따로 두었다가 솥불 위에 뚝배기를 놓고 간수를 부어 끓이면서 밥과 같이 넣고 이때 계절에 따라 묵은 김치나 햇김치, 깍두기 등을 같이 넣어 끓인다.

파를 송송 썰어 깨소금, 고추가루 등과 함께 양념으로 올리며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데 여가다가 쇠고기 자장과 달걀을 풀어낸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비빔밥과 더불어 가장 대중화된 음식이자 왜래객들에게 인기있는 음식으로 선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제 5 절 세 시 풍 물

△ 전주부성 토향세시기는 반세기 전 이조 순조~고종 (1801 ~ 1910) 년 간으로 소급하여 그 잔영과 전승을 부각 망해로상 정경으로 옮긴 것이다.

△ 월별 열기는 춘·하·추·동 계절로 잘랐고, 다시 달별로 묶었다. 또한 계절은 24절기 차례로 가렸으며, 달별로는 상보름, 하보름 절차로 분별하여 엮었다.

1. 정월령 (正月令-上元節)

조세 (肇歲), 신정 (新正)

의례 : 사당다례 (祠堂茶禮), 성묘 (省墓), 세배예사 (歲拜禮詞) 연상 (年上)
= 환세안녕 (換歲安寧), 평교 (平交) = 과세안녕 (過歲安寧), 연하 (年下) =
시봉평안 (侍奉平安)

※ 덕담공손 배수 = 금년 해는 대운 만나 만사형통 하여 명과 복을 많이 타게 되었다 하니 좋은 일이네.

관 (冠), 의상 :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정에는 성장 (盛裝) (※ 아이들은 까치옷으로 성장)

기호음식 : 도소주 (屠蘇酒-耳明酒), 떡국, 약과, 콩떡, 식혜, 수정과, 강정, 다식, 만두, 찰밥, 오곡밥, 진소 (陳蔬) 먹기, 잉어찜, 모과차, 꿀차, 유자차, 어포, 육포, 삼백주, 단자, 생강정과, 연근 (蓮根) 정과, 수시, 고음, 닭찜, 암소갈비찜, 민물게찜, 전유어, 조기탕, 송어구이, 꿩탕, 대구탕, 북어탕, 백산, 미역튀각, 다시마튀각, 건대하 (乾大鰓), 건시 (乾柿), 생합, 육회, 당면, 건대구, 북어, 가오리, 피등어, 해삼, 전복, 낙지, 어징어, 장회, 밤, 대추, 은행, 잣, 호도, 홍합, 백청, 조주, 녹두묵, 상수리묵, 쑥국, 오종고, 정어리, 호박고지떡, 인절미, 콩나물국, 메밀국수, 가물치회, 햇새우젓, 준치젓, 조기젓, 동침국, 느림적, 쇠머리, 닭찜, 애저 등.

2. 2월령 (二月令-靈祭節)

의례 : 석전제 (釋奠祭) 2월, 8월, 춘, 하, 정자 (丁子) 일에 시형 (時亨-향교) 세존입적제 (世尊入寂祭) (음 2월 15일) 사사기념 (四事記念) 불공

관, 의상 : 백목 (白木-목면포), 옷입기, 명주내주안 주의 (周衣) 입기

※ 2월 그믐~3월 익월 (翌月)

기호음식 : 파김치, 미나리김치, 쑥국, 호박고지떡, 팔밥, 비빔밥, 콩나물국, 녹두죽, 깨죽, 식혜

3. 3월령 (三月令-寒食節, 三辰節)

의례 : 한식제, 성묘, 시제 (시형)

관, 의상: 모시옷 입기

기호음식: 풋마늘, 준치찜, 배피떡, 계피떡, 팔밥, 조기탕, 속대기, 민어탕, 오가쟁이, 민물게찜, 메밀묵, 녹무묵, 녹두죽, 식혜, 잣죽, 깨죽, 대추죽, 육회, 대하, 방어, 도미, 농어, 죽합, 미나리강회, 나박김치, 쑥떡, 화전, 어계(魚鷄)찜, 애저, 히금자떡, 갈비, 쑥단자, 비빔밥, 생선회, 육회(간, 천렵, 양, 콩팥), 어채 등

4. 4월령(四月令-燃燈節)

의례: 세존탄신제(4월 초 8일)

관, 의상: 한산모시, 다듬이감 행의 입기, 홍두깨 올림, 모시질솔 옷 입기, 누비이불 덮기

기호음식: 수리치떡, 조개탕, 시루떡, 두견화채, 오가쟁이, 조기탕, 비빔밥, 물외, 속대기(돌김), 도미찜, 민어찜, 민물게찜, 석해우젓, 애호박, 설기떡, 풋고추, 딸기화채, 앵두화채, 열무김치, 생선회, 생육(生肉)회, 육포, 어포, 녹두묵, 녹두나물, 녹두죽, 깨죽, 연계백숙, 준치, 대하, 도미, 죽합, 쑥떡, 배피떡, 계피떡, 화전, 방어, 송어, 잣죽, 대추죽 등

5. 5월령(五月令-端午節)

의례: 단오다례, 불공참예

관, 의상: 모시다리미감 행의 입기, 입자죽령(笠子竹鈴), 여인지혜(女人紙鞋), 누이불 덮기, 갑사겹이불, 삼베겹이불 덮기

기호음식: 다수, 앵두화채, 보리수단, 죽순탕, 화전병, 잣죽, 대추죽, 깨죽, 앵두, 살구포도, 열무김치, 가조기, 기정떡, 애호박전, 수박, 참외, 굴비, 풋고추, 콩죽, 재증병, 상실(오두개), 계피떡, 연계백숙, 상추쌈, 살구씨죽, 전병부침 등

6. 6월령(六月令-梳頭節)

의례: 유두제(6월 15일) 천신제(薦新祭), 선영봉제(先塋奉祭)

관, 의상: 모시 겹이불 덮기, 삼베 홀이불 덮기, 삼베 홀옷 입기, 등삼 입기, 등토시끼기, 죽부인요침(竹婦人腰枕), 죽점(竹簾-수점), 돛자리 깔기, 죽침 목침, 단(團-圓) 선문장(扇蚊帳), 갈포장(葛布帳) 치기

기호음식: 붕어찜, 냉국수, 장어구이, 우무, 가조기, 굴비, 가지김치, 오이김치, 미역냉국, 구탕, 연계백숙, 모자찜, 까중가리잎볶음, 메밀국수, 밀국수, 피등어, 북어, 홍합, 전대구, 등의곰탕, 냉콩죽, 수제비, 매실주, 미숫가루, 은어회, 장어구이, 수리치떡, 살구씨죽, 전병부침, 상추쌈, 보리수단, 애호박전, 백청(白淸), 조청(造淸), 백산이(白 鉛), 천어(川魚)찜, 육포, 어포 등

7. 7월령(七月令-百中節)

의례: 칠석제(칠성불공제), 백중제(7월 15일), 우란분회제(盂蘭盆會祭)

관, 의상: 안동포, 모시, 도루사, 도루마 옷 입기

기호음식: 애저찜, 농어찜, 호박떡, 조홍시(早紅柿-팔월시(八月柿)), 자시복숭, 토란대

나물, 민물게장, 장이구이

8. 8월령(八月令-嘉俳節)

의례: 선영제(성묘), 석전제, 2월, 8월, 춘추 상정일(上丁日), 향교제

관, 의상: 신의성장(新衣盛獎), 차린 이불 덮기(얇팍한 솜이불), 솜이불 덮기

기호음식: 송편, 인절미, 콩떡, 민물게찜, 민어전, 햇곡밥, 시루떡, 추전구이, 갈비, 생
합짬, 우족탕, 열고자탕, 토란국, 약식, 식혜, 감설기떡

9. 9월령(九月令-重陽節-仲秋節)

의례: 시제(時祭-基祭-時享)

※ 9월 9일 중앙절 5대조 이상 묘제(墓祭)

관, 의상: 명주 내주안, 주의(周衣)입기, 진술 겹옷 입기

기호음식: 국화주, 국화전, 포도주, 오디주, 삼백주, 육회, 녹두묵, 갈비, 민어찜, 메뚜
기볶음, 낙지, 쭈거미, 농어, 병치, 생합, 갈치, 게찜, 토란국,

10. 10월령(十月令-開天節)

의례: 시제(묘제, 시형) 10월 15일 5대조 이상 묘제

※ 개천절=10월 3일, 단군탄신일(건국, 서거일 등 모두 10월 3일)

관, 의상: 겹옷입기, 겹행의 입기, 솜이불 덮기

기호음식: 콩떡, 콩밥, 대구탕, 석화, 뽕어, 장어, 생합, 해삼, 토란국, 무시루떡, 고지
시루떡, 밤단자, 대추단자, 연계찜

11. 11월령(十一月令-冬至節)

의례: 동지제(아세제), 사당다례(祠堂茶禮-팔죽제)

관, 의상: 한옷 입기(솜옷, 솜두루마기), 남바위, 조바위쓰기, 한토시끼기, 솜버선, 배
자, 마고자 입기, 병풍치기

기호음식: 청국장, 김, 시루떡, 비빔국수, 무시루떡, 참새구이, 동치미국, 연시, 청어구
이, 정수과, 명태국, 대구국, 만두국, 홍어, 방어젓, 복어탕, 생강정과, 열고자탕
메기탕, 호박죽, 찜탕, 떡국, 갈비, 기정떡, 마른개정, 배추속대쌈

12. 12월령(十二月令-臘亨節)

의례: 납형제, 수세장등제석제(守歲長燈除夕祭)

관, 의상: 동짓달과 같음

기호음식: 참새구이, 수정과, 애저찜, 연시, 콩나물 해장국, 명태국, 김, 방어젓, 갈비,
청어구이, 정어리구이, 대구탕, 약식, 구세미젓, 대구알젓, 흰떡, 가래떡, 홍어,
복어탕, 무시루떡, 추어탕, 찜탕, 호박고지떡, 감고지떡, 청국장, 기정떡, 마른개
정, 메기탕, 배추속대쌈, 산저육(山猪肉)

1. 전주팔미

1) 파라시 (8 월 시) - 서낭골 (성황사, 기린봉룡), 산성골, 남고진, 안터골 (구이동평균) 대성골 (상관, 대성리) 산을 꼽았다.

※ 감 저자=사정리, 지금 서서학동 공수내 밑 교대 부속국교변

2) 열무-기린봉 쪽과 효간치 (구이동) 산을 꼽는데 특히 효간재 쪽이 더욱 좋았다.

※ 사유=응달 숲속에서 자라 사각사각한 맛이 훌륭하였기 때문이다.

3) 녹두묵-자만동 (교동) 녹두포섬의 녹두묵을 부성의 자랑으로 꼽았다. 이곳의 샘물로 빚은 묵은 천하진미로 강호에 알려져서 경향의 기호가들에게 날개돋친 듯 팔렸다.

4) 서초 (담배) - 부성의 주변으로 담배산지가 넓게 있으되, 특히 소양 대흥골과 상관 마치고 산 담배맛은 평안도 함천, 충청도 충주 증평, 진천 담배맛과 버금한다고 하였다.

※ 서초=서양에서 건너 왔다 해서 서초라 하였다.

5) 애호박-토양의 탓인지 유독 신평리쪽 (송천동) 산동산 애호박 맛을 일품으로 꼽았다.

6) 모자-한내 (대천) 의 모래물 속 모자와 남천, 서천 모자의 조림 (지짐) 과 부침, 탕 등은 주당들의 미각을 돋구었다. 특히 삼복좌하에 천렵으로 낚은 물놀이 안주는 장장하일을 이열치열로 잇는 데 적격으로 알려졌다.

7) 게 (해) - 맛물계로 한내 갯을 꼽되 남천, 서천, 남고천, 반석천, 다가천, 가련천, 삼천 것도 곁들여 꼽았다. 게찜, 게장조림은 부성 주사와 여염집 아낙네들의 갯은 양념과 속의 조화미를 갖추어 본 솜씨에서 낚은 미각을 높이 상주었다.

8) 무우-삼례 황토밭 산, 신평리 산동산 무우는 예로부터 부성의 <사불여설>로 꼽혀 유명했다.

※ 주 : 사불여설=① 반불여리 ② 기불여통 ③ 이자여정 ④ 주불여효

9) 콩나물-콩나물은 부성 일원에 걸쳐 하루 세때 식찬상에 올랐던 반찬이다. 이는 부성의 풍토 탓으로 상식한다고 들리는데, 특히 상정골 노내기샘과 자만동 녹두포섬, 그밖의 남천, 서천 물로 기른 콩나물을 꼽았다.

※ 주 : 임실산 <서목태> 콩나물콩 이라야 했다.

10) 미나리-서원고개 (화산서원치) 에 다다르면 미나리 향취가 물씬 몸에 밴다. 이 일대는 유래 깊은 미나리 고장으로 그 풍미는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다.

2. 부성삼화

1) 동고산 진달래-승암산의 진달래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날 때 온 산들은 새벽 복새 (요하) 가 뜨듯이 꽃이 핀대서 동성 홍하로 부른다. 우리나라 어느 고을이나 봄이 오면 피는 꽃이다. 그러나 특히 이곳 승암산 진달래꽃은 관북의 영변 약산 진달래보다 높이 꼽았었다. 예로부터 춘 3월, 방창하면 인구에 회자되어 꼽혔던 정경이었다.

2) 다가봉 입하화-첫여름 입하 무렵에 피는 꽃이다. 이 꽃의 개화기는 5월 10일 전후로, 약 보름동안 눈빛처럼 피는데 그 향기 또한 놀랍다. 이때쯤은 모란이 피고 라일락이 피는 때다. 사람 따라 심미안도 모두 자각이라지만 두 꽃이 어찌 와서 전주라. 그 향기는 라일락을 능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나무로 남쪽 다도해 연안, 제주도 등이 고작이다. 부